
스물다섯 번째 촛불평화미사

2008년 12월 12일 오후 2:44

스물다섯 번째 촛불 평화미사

가는 곳 마다 어렵다는 얘기만 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이웃들에게 마음을 내어 주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웃과 함께 하기위해 우리는 촛불의 평화미사를 준비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경배하기위해 우리자신 보다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시간을 봉헌합니다.

스물다섯 번째 봉헌 되는 촛불 평화미사는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의 준비로 봉헌 됩니다. 이번 미사는 여성의전례로 봉헌 됩니다. 미사형식을 좀 더 새롭게, 그리고 풍부하게 가져가기 위하여 조금은 다른 전례의 방식으로 봉헌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시간표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외된 이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길 기도드립니다.

스물다섯 번째 촛불평화미사

◎ 일 시 : 2008년 12월 13일(토) 오후 4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 강당

◎ 미사집전 : 하 유 설 (메리놀회), 촛불평화미사 사제단

■ 주 최 :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회사목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